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방안 연구
- 문학토론을 통한 <명저읽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강옥희¹⁾

— <목차> —

1. 들어가는 글
2. 명저읽기(문학) 수업 방식 및 특징점
3. 문학토론을 통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의 확장
4. 나가는 글

1. 들어가는 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다는 공포를 선사하며, 증기기관의 발명과 대량생산으로 인류의 생활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1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능가하는 상황을 예측하게 하고

1) 상명대학교 기초교양대학, okhee.kang@smu.ac.kr

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 된 4차 산업의 키워드인 로보틱스, 인공지능, 딥 러닝 등에 대한 정보는 인간의 지적 노동에 대한 국민의 단초를 제공했고, 경제성장의 부진으로 인한 취업률의 하락,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하드,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대학은 프라임 사업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존재에 대한 사유, 소통에 필요한 교육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기술의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의 대학이 분과별 학문의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의 장이었다면 오늘날의 대학은 전문적인 지식, 개인의 역량에 맞춘 학습을 지향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의 패러다임과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면서 최근 각 대학은 교양인으로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여러 인문고전 관련 독서 강좌를 개설하거나 장기적 혹은 단발성의 인문학 독서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대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독서를 선정하여 고전읽기를 독려하고 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교양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움직임은 인문교양교육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창의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통찰력과 소양을 기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인문학을 강화하는 움직임

임은 인문학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며, 학제 간 융합을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성찰이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학제간의 융합과 융·복합적인 사고력, 창의성에 대한 요구는 날로 변화무쌍해지는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인문고전 읽기 강좌 등을 신설하여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양교육의 토대마련에 인문고전 읽기를 바탕으로 한 쓰기, 토론 등이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고전의 읽기, 쓰기 토론 등은 융·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그것을 통한 통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IT기술의 발전과 입시로 인한 문제풀기 중심의 과도한 학습이 학습능력 및 사고능력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IT환경과 기술의 변화 및 발전은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러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IT기반의 학습 환경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시를 위한 기계적인 문제풀이와 암기에만 치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은 창의적인 질문이나 사고능력을 저하시키고, 창의적인 질문의 부재나 사고능력의 저하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발전의 추동력을 떨어뜨리며, 국가적 사회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반 교육환경에서 인문고전 수업은 읽기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쓰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이나 영상자료의 범람으로 책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인문고전 관련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개인의 삶과 진로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게 하는 것은 교양교육에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다.²⁾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대학들은 최근 인문고전 읽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학문에 대한 근본, 삶에 대한 근본을 찾고 나아가 사고 능력의 신장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또한 교양교육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문고전 읽기 강좌인 명저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명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명저읽기(문학)은 동서양의 대표적 명작을 읽고 문학작품에 반영된 인간 삶의 모습과 시대상황을 살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학작품의 읽기와 토론으로 사고의 심화와 확장을 꾀하고 창의적, 통합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수업방식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진행해온 상명대학교의 고전읽기 강좌인 명저읽기(문학) 수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의 개발 및 확장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의 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

2)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 10세 이상 국민의 평일 하루 독서시간은 6분으로 1999년 9분에서 3분 감소했으며,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tv시청으로 10세 이상 국민이 TV를 보는 시간은 평일 1시간53분, 토요일 2시간 31분, 일요일 2시간51분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 이후 최근 와이즈 앱에서는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0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35>)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독서시간의 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년세대의 독서능력이 부족할 경우 창의적인 사고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때 창의적인 사고력의 배양과 그것을 토대로 한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써 다양한 독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은 고전읽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강조하고 있고(이진남, 2013: 407-442)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진, 윤준채(박정진, 윤준채, 2004: 119-144)³⁾ 정의한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고전읽기 수업방안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2. 명저읽기(문학) 수업 방식 및 특장점

상명대의 명저읽기 수업은 교양 선택 과목으로 명저읽기(일반), 명저읽기(문학), 명저읽기(과학)의 세 분반이 개설되어 있다. 2014년 2학기 명저읽기(일반)으로 시작한 강좌는 2015학년도 1학기에 명저읽기(일반) 외에 명저읽기(문학), 명저읽기(과학)으로 세분화한 후 재학생을 위한 ‘상명추천도서 100선’을 기본텍스트로 삼아 기초교양대학 소속의 전공별 담당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명저읽기 강좌의 기본 텍스트인 ‘상명추천도서 100선’은 의사소통능력 개발센터주관 상명추천도서 100선 선정위원회에서 상명대학교 재학생의 교양 진작을 목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선정한 것이다. 특별히 추천도서로 100선을 선정한 이유는 100이 상징하는 채움, 완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대학생이 읽어야 할 교양도서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을 분야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각 분야별로 추천도서를 선정한 이유는 교양관련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후 단과대학별, 계열별 추천도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명 추천도서는

3) 박정진과 윤준채는 비판적 창의적 질문과 반응을 분석하는 범주와 코드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나누고 있다. 비판적 사고의 하위요소로는 문제의 규명 및 명료화, 문제 관련정보의 평가 및 판단을,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로는 유창한 사고, 융통성 있는 사고, 독창성 있는 사고를 들고 있다.

문학(한국문학과 외국문학 포함)분야, 사회·역사·철학 분야, 문화·예술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나누어 최종 100권을 선정하였다. 명저읽기 교과목은 추천도서 100권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 중에 진행한 글쓰기를 지도하여 교과 연계글쓰기 대회로 확산하고 있다. (상명 추천도서선정위원회, 2015:7~10, 50)

명저읽기 강좌 중 명저읽기(문학)은 매학기 ‘상명추천도서 100선’ 중 문학 분야의 텍스트를 4권정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매학기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수업은 퀴즈, 토론, 발표, 강의를 혼합한 방식으로, 책을 읽고 팀별로 토론 활동을 한 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생각을 교환한다. 작품을 시작하는 첫 주에 토론을 하고 토론문은 E-campus에 올려 공유하며 각자의 감상문은 토론이 끝난 후 E-campus에 올린다. 다음으로는 개별 독후감을 작성하고 교수자가 독후감을 선정하여 다시 토론과 발표를 한 후 교수자는 독후감을 피드백 해준다. 피드백이 끝난 독후감은 학기말에 시행하는 비평적 에세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수업단계별 학습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단계별 학습모형

단계	수업주차	수업내용	비고
1단계	수업전	텍스트 읽기	수업 전까지 내용 이해, 퀴즈대비
2단계	1주차	퀴즈, 문학토론, 토론 내용 발표 및 공유 정리	수업 후 토론내용 e-캠퍼스에 업로드 개별독후감 쓰기
3단계	2주차	강의	개별 독후감
4단계	3주차	독후감 토론 및 토론 내용 발표	독후감 선정, 피드백
5단계	학기말	비평적 에세이대회 제출	피드백 받은 독후감 수정 후 에세이대회 참가

표에서 본 것과 같이 ‘명저읽기(문학)’ 수업은 수업 전 텍스트 읽기, 퀴즈, 토론, 발표, 독후감 쓰기, 독후감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명저읽기

(문학) 수업의 특이점 하나는 퀴즈를 통해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퀴즈는 보통 새로운 텍스트를 시작하는 주에 실시하는데 텍스트의 내용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한다.⁴⁾ 텍스트 시작 전에 실시하는 간단한 퀴즈는 성적을 부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텍스트를 읽지 않아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명저읽기(문학) 같이 텍스트를 읽어야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의 경우 학습자들이 반드시 텍스트를 읽어야 효과적인 수업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작품의 내용을 묻는 퀴즈는 꼭 필요한 수업방법이다. 퀴즈를 보기위해서 학습자들은 꼼꼼하게 책을 읽어야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 이해 퀴즈는 토론하기 전에 작품을 깊이 있게 읽게 하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퀴즈는 독서를 충실하게 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학생들이 독서를 꼼꼼히 하도록 추동하는 요인은 성적을 부과하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전체 성적에서 퀴즈 점수의 비중을 높이고 독후감을 부여하여 선행적으로 텍스트를 꼭 읽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⁵⁾

토론수업의 예비단계인 퀴즈 테스트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다. 3학점 3시간으로 구성된 명저읽기(문학)수업은 일반적인 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토론에 할애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논제를 선정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조별로 토론이 끝나면, 토론내용을 발표하게 하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꾀하기 위한 방법이다. 명저읽기

4) 퀴즈는 ‘벨레로폰의 편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이트 심리학의 이론이 된 신화 속의 신들은? 같은 사실적인 내용을 묻거나 ‘그레고르의 현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츠비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가? 같이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약속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한다.

5) 명저읽기(문학)은 출석 10%, 중간고사(퀴즈 포함) 20%, 과제(독후감 4편)30%, 발표 및 토론 20%, 기말고사(퀴즈 포함) 20%로 평가하고 있다. 퀴즈는 약 12점에서 16점정도 반영하지만 퀴즈로 인해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

(문학) 토론 수업의 특이점은 각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E-campus에 올려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 다시 토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달고 답변하게 하는 것이다. E-campus에 조별 토론내용을 올려 공유하게 하는 것은 수업시간에 진행한 같은 토론조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의 문제의식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토론내용을 공유하게 하는 이유는 같이 토론을 하는 조원은 6명이지만 E-campus에 공유한 토론 내용을 보면서 전체 수업구성원의 생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 문학텍스트를 다채롭게 감상하게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에 토론내용을 발표하지만 발표자에 따라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조별로 정리하여 E-campus에 올리게 하고, 다시 읽고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조별 토론 내용을 발표할 때 특정한 조원이 발표를 전담할 경우 발표조원들의 태도나 다른 청중들의 태도가 현저하게 느슨해지므로 토론조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발표방식은 발표자에게는 조리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청중은 경청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텍스트 이해를 위한 퀴즈와 토론을 마치고 나면 교수는 작품의 구조 분석, 작가와 작품의 시대적 상황, 그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강의한다. 텍스트에 대한 강의를 끝난 후에는 학습자들이 제출한 독후감 몇 편을 선정하여 조별 토론을 통해 각각의 독후감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게 한다.⁶⁾ 명저읽기(문학)수업은 학습자가 읽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

6) 독후감은 명저 읽기(문학)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통 한 작품을 3주 정도 다루는 데 1주차 수업에서는 퀴즈와 토론을, 2주차 수업에서는 강의, 3주차 수업에서는 독후감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 독후감은 퀴즈와 토론이 끝나는 주차에 학교의 E-campus에 업로드하게 하고 교수는 독후감 중 7-8편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독후감은 구조적 논리적으로 잘 쓴 글, 문학적인 표현이나 생각이 잘 드러난 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글, 독특한 형식의 글, 구

고,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을 피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쓰기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제가 작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감상문 쓰기이다. 교수자는 매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감상문쓰기를 강의하고 첨삭피드백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감상문을 쓰면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교수자가 선정한 독후감을 꼼꼼히 분석하고 글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학습자들은 색다른 글쓰기 방법이나 작품에 접근하는 사유의 방식을 보고 자신들의 글쓰기 방식을 점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명저읽기(문학)는 매학기 두세 번 정도 글쓰기 피드백을 해주는데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글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수업시간에 다른 학습자들의 독후감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스스로 점검하는 경험을 한다. 학습자들이 다른 글을 읽고 분석하면서 자기 글의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찾는 성찰의 시간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생각을 정리하여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많은 학습자들은 기말 설문조사에서 독후감 분석토론 수업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하여 좋았으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글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글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다양한 생각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사고의 확장에 기여하는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문학토론⁷⁾을 통한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의 확장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논의해 왔고, 그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⁸⁾ 그중에서도 책을 읽고 진행하는 독서토론은 “개인적 차원의 독서활동을 토대로 토론의 과정이란 집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심화하는 교육방법” (신희선, 2012:11)으로 교양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찬반의 의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토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을 토의라고 할 때 문학토론은 텍스트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까닭에 양자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개인적인 독서활동과정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때는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거하여 책에 대해 판단을 내리므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나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서와 토론을 병행할 경우에는 여러 명이 단일한 텍스트를 읽을 때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독서보다 훨씬 다

7)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학토론은 문학작품의 속성인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의 다양한 경험과 해석을 통해 텍스트에 대해 총체적인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문학토론에 대한 논의는 그간 국어교육의 방법론으로 초중등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상욱(2013). “문학토론의 방향과 방법”,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7-238. 김상욱(2009).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토론의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4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34. 김상욱(2004). “문학적 사고력과 토론의 중요성”, *한국초등국어교육* 2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97-124. 김주환(2004). “독서토론이 고등학교 학생의 감상문 쓰기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5-29. 이남호(2011). “21세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 10,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21. 대학의 문학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토론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인화(2013).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49-280. 정재림, 이남호(2014). “문학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박완서 소설에 대한 토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417-442.

8) 사고와 표현 학회의 21차 정기학술대회의 대 논제인 대학토론교육의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대학에서의 토론교육의 중요성을 살피는 기획이었으며, 교양교육에서 토론의 중요성은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이나 지식,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토론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잘못된 지식에 대한 수정,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저읽기(문학) 수업도 토론으로 텍스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품읽기를 수행하고 있다. 문학텍스트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텍스트와 달리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 조별 구성원에 따라 토론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 명저읽기(문학)은 보통 5~6명으로 한 조를 구성하는데 조원은 교수자가 랜덤으로 조합한다. 상명대는 인문계열, 사범 계열, 상경 계열, 자연과학 계열, 소프트웨어 계열, 예술 계열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교수자는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인원을 안배하여 다층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지닌 조원들을 섞어서 토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를 구성한다.⁹⁾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토론은 교수자 중심의 토론과 학습자 중심의 토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문학토론은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중고교의 문학교육은 각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의거해 진행되어야하므로 학습자간의 상호작용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학텍스트에 대한 교수자의 질문은 작품의 형식적인 구성요소, 작품에 대한 인상비평적인 감상, 갈등, 복선이나 결말, 작중인물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사고의 확장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생각의

9) 토론 학습의 성과는 조원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학기 조원을 구성하기 전에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데 지극히 소심한 학습자가 이는 사람과 같은 조로 만들어달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조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수업에 대한 각각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수강 신청에 실패해서 수업을 듣게 됐거나 소극적인 참여자가 많은 경우에는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10)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과목별 분류별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이 있다. 따라

확인에 머물거나 교수자의 기준에 의해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므로 학습자 상호간의 토론에서 일어나는 텍스트의 다양한 해석이나 성찰에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인화(2013:251)는 문학토론이 “문학교육에서 독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독자의 텍스트 읽기만이 아니라 독자 간 문학토론을 통해 문학을 경험함으로써 해석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해석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텍스트에 비해 문학텍스트는 더욱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문학토론을 통해 독자는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즉, 문학텍스트가 지닌 해석의 확장성을 통한 다양한 사고능력의 개발은 문학토론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저읽기(문학)수업의 문학토론은 교수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열린 토론을 지향한다. 대부분 인문교과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들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특정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거나 찬반이나 특정한 형식을 갖춘 토론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글쓰기까지 연계하여 다루는 경우가 많다. 상명대학교의 명저읽기(문학)수업은 토론이 중요한 학습의 과정을 이루지만, 특정한 형식을 두지 않고 찬반토론 같은 논증적인 토론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인화(2013:252)가 언급한 것처럼 “문학 텍스트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학토론에서의

서 이 성취기준에 의거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문학토론이 되기보다는 학생들의 개량적인 지식을 묻는, 성취기준에 따른 단순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남호, 조혜숙, 남궁민(2008).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비판적 연구-2007 개정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논문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56-168.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교육학회, 67-106. 서영진(2013),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6, 국어교육학회, 415-450.

소통은 찬반의 대립정보보다는 ‘다름/차이(difference)’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조정”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상명대학의 명저읽기(일반)이나 명저읽기(과학)은 매 작품 토론 시에 논제를 제공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특정한 논제를 정하여 찬반토론으로 수업을 할 경우 교수자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논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름과 차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텍스트를 다루는 명저읽기(문학) 수업은 교수자가 논제를 제공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찾아낸 토론 논제를 통해 다양한 해석적 소통을 경험하게 한다. 다만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 한 가지 논제로 학습자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경쟁적인 의사소통방식의 찬반토론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자와 패널들의 상호 협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켜나가는 기회를 준다. 이것은 문학텍스트에서 뽑아낸 주제를 가치토론을 통해 다르게 해석해보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명저읽기(문학)수업에서는 장편, 단편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4작품이나 5작품을 다루는데 매학기 학생들의 니즈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선정을 조금씩 달리한다.¹¹⁾ 2016년 1학기 명저읽기(문학) 수업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변신*, *걸리버 여행기*, *위대한 개츠비*, 2016-2학기에는 *변신*, *오만과 편견*, *걸리버 여행기*, *위대한 개츠비*를 텍스트로 사용했다. 명저읽기(문학)는 3시간 3학점 연강수업이다. 토론은 새로운 텍스트를 시작하는 주에 진행하며 대략 60분에서 80분 정도를 토론시간으로 제공한다. 토론은 자유로운 해석을 지향하므로 토의형태의 질문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토론 논제를 설정 할 때는 “학생들이 ‘새로운 논제들’에 연관되도록 돕는”(박삼

11) 명저읽기(문학)수업의 문학 텍스트는 소설의 비중이 높다. 그것은 학생들이 시보다는 소설을 선호하고, 명저읽기 강좌개설 초반에 다루었던 시에 대한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선택한 결과이다. 다만 시문학 텍스트는 중간고사 기간을 이용해 학생들과 작품을 낭송해 보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열, 2012: 241) 선에서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진행한다. 교수자는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의 등을 묻는 아주 기본적인 공통 논제만 제공하고, 각 조별로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논제를 만들어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명저읽기(문학)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토론논제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평균적인 학습능력은 매우 높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이나 작품을 해석하는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것은 수능을 위한 기계적인 수업과 문제풀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문학수업이 성취기준에 따르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문학과목은 입시의 한 과목으로만 간주하여 논제를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 문제풀이 중심의 수동적,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업시간 관계상 작품의 전체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살피기가 어려워 작품의 일부만 다루거나 요약본으로 작품을 접하기 때문에 작품을 향유하고 그것에 대한 미적체험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질문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학생들은 매우 수동적으로 수업에 접근하는데 그것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공부가 수동적인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연유로 토론이나 적극적인 소그룹활동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팀원들 속에서 방관하거나 주어진 문제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명저읽기(문학) 수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와 달리 토론 같은 학습자중심의 소그룹활동보다는 교수자

의 강의 위주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1학기 명저읽기(문학)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정도(총 응답자 31명중 23명)가 교수의 강의 위주 수업을 원했다. 학습자들이 소그룹 활동보다 강의 위주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룹 활동 시, 무임승차하는 동료에 대한 반감이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한 협동학습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습자들의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명저읽기(문학)수업은 최근 학생들에게 현저하게 부족한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얻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상상력과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동시에 필요한 문학텍스트를 이용한다. 수업 전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문학텍스트에는 정해진 답이나 생각이 아닌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특정한 논제를 제공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석과 사고로 작품을 볼 것을 주문한다. 그 이유는 교수자가 논제를 제공하거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어진 한정된 공통의 논제로 토론을 할 경우 학습자들이 주어진 것 이상의 텍스트 해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교수자가 논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토론 진행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분석한 텍스트에 대한 생각에 자신이 없거나 타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견해를 설득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수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타인의 기준, 특히, 교수자의 권위에 부합하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 질문보다는 주어진 답

12) 학생들은 대학 오기 전의 수동적인 공부습관으로 인해 어떤 학습활동을 할 때 교수자가 샘플을 제공하거나 논제를 제공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해결을 요구하면 당황하거나 위축되어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자가 샘플이나 문제해결의 방법을 줄 경우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사고를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가 제공한 문제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스스로의 사고를 멈추는 경향이 있다.

에 익숙해진 요즘의 학습자들이 스스로 논제를 만들고 자신이 가진 경험을 재구성하여 텍스트를 해석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교수자는 이러한 학습자들로부터 텍스트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논제를 제공한다. 그 후 학습자들은 스스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 각 조원들이 제출한 문제를 분류하고 나누면서 문제를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하게 숨어있는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해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토론참여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수업이 끝난 후 각조별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학교 E-campus에 올려 다른 조원들과 토론내용을 공유한다. 토론이 끝나면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각조의 보고서를 읽고 반드시 하나 이상 댓글을 달도록 유도하여 문학텍스트의 다채로움과 토론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도록 한다.

회신: 4조 '오만과편견' 토론보고서
2016년 10월 14일(금요일) 오후 2:45 이후에 의해 작성

4. 사람과 경제력이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인가?

사람과 경제력은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없이 이 사람의 배설이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혼에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는 혼자사는게 낫다고 생각이 된다. 육안이 경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어들 능력이 없거나 낮아 있다면 결혼 전 보다 불행하게 살 것인데, 그렇기에는 결혼을 안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회신: 4조 '오만과편견' 토론보고서
2016년 10월 14일(금요일) 오후 3:49 일지후에 의해 작성

4번의 논제와 토론내용을 보면서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력은 같은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각자

회신: 4조 '오만과편견' 토론보고서
2016년 10월 14일(금요일) 오후 7:37 이예환에 의해 작성

4. 사람과 경제력이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인가?

사람과 경제력이 적절하게 어느정도 이상은 유지되어야 결혼이 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경제력 둘중하나라도 필요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거 같습니다.

회신: 4조 '오만과편견' 토론보고서
2016년 10월 16일(일요일) 오후 4:48 윤지영에 의해 작성

4번 논제의 토론 내용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마다 결혼관이라는 생각이 따라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1〉 E-campus에 올린 토론응답화면

그림1은 학습자들이 e-캠퍼스에 올린 토론 보고서에 대한 댓글 내용의

일부이다. 학습자들에게 다른 토론조의 주제에 댓글을 달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가지 텍스트가 다층적이고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 다채롭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문학작품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짧은 글이지만 댓글을 달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도 있으며 타인의 생각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토론내용에 대한 댓글 달기는 토론의 효과를 넘어서 온라인에서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대학교육에서 토론교육은 비판적 사고능력, 분석능력, 이해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같은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적극적인 참여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길러주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황지원, 2013: 571~572) 문학토론 역시 다양하게 열려있는 텍스트의 의미 해석과 이해 과정에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 작품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다. 명저읽기(문학) 수업에서 자칫하면 산만해질 수 있는 방식의 토의형 문학토론 형식을 취하는 것은 문학작품에 반영된 인간 삶의 모습과 시대적 상황을 살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문학토론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사유를 통한 질문으로 텍스트를 깊이 읽고 사고의 심화와 확장을 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 통합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토론논제를 주거나 토론에 대한 특정한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열린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할 때 학습자들은 다양한 토론거리를 내놓고,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생각을 구조화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토론 구성원들이 지닌 의견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면서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문학토론을 통한 창의성과 사고 능력의 확장은 학생들이 도출해낸 토론 논제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가 토론논제를 제공하고 토론을 진행할 때는 많아야 5~6개의 토론논제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명저읽기(문학)수업을 진행하면서 조사한 결과 교수자가 토론논제를 주지 않았을 때 전체학생들은 작품 당 평균 3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논제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1학기 명저읽기(문학)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변신, 걸리버 여행기, 위대한 개츠비 등 총 세편의 장편과 1편의 중편을 읽고 수업을 진행했고 2학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대신 오만과 편견을 다뤘는데 아래의 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만들어낸 토론논제이다.¹³⁾

〈표1〉 그리스 로마 신화 토론논제

	토론 논제
1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	현명한 미다스가 되기 위한 방법은?
3	신의 인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것인가?
4	'신화'를 보고 난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5	신화의 비현실성은 무엇인가?
6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하는 이유?
7	가장 인상적이었던 신 또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8	우리에게 신들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9	'그리스 로마 신화' 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신과 싫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10	'그리스 로마 신화' 는 왜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가?
11	'그리스 로마 신화' 는 청소년 권장도서로서 가치가 있는가?
12	'그리스 로마 신화' 에 자주 등장하는 납치와 유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3	프로쿠르스테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14	고전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5	고전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13) 각 텍스트에 대한 토론 논제 중 첫 번째 논제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기본논제이다.

16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스와 프시케를 보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심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17	신들의 권력 유무에 따른 만행을 현대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18	작품 속에서 신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9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0	프시케는 영웅인가?
21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2	아리온의 행동은 탐욕인가?
23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24	고대 그리스인은 신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는가?

〈표2〉 변신 토론 논제

	토론논제
1	카프카의 변신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2	변신 속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해보자
3	작품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4	그레고르 가족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은?
5	그레고르의 예술에 대한 집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	인간과 벌레의 차이를 고찰해보자
7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의 부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8	작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9	작품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한다면?
10	벌레는 오늘날 무슨 층으로 볼 수 있을까?
11	왜 벌레로 표현 했을까?
12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13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지 않았더라면?
14	변신의 의미는?
15	벌레로 변환 그레고르가 상징하는 것은?
16	작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17	그레고르가 변했을 때, 가족들의 심리와 만약에 내가 그의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18	내가 그레고르처럼 우리 집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면?
19	파출부라는 인물이 의미하는 것은?

20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의미하는 것은?
21	가족의 태도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22	그레고르의 헌신이 주는 교훈은?
23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뒤 가족들의 태도가 의미하는 것은?
24	어느 날 내가 벌레가 된다면?
25	그레고르가 죽은 후 가족들의 소풍이 의미하는 것은?
26	그레고르의 삶의 태도를 분석해 보자
27	그레고르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를 논해보자
28	‘그레고르’ 라는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표3〉 걸리버여행기 토론 논제

	토론논제
1	조너선 스위프트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
2	만약 걸리버가 휴이넘에서 계속 살 수 있었다면?
3	휴이넘은 과연 이상적인 나라일까
4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4나라 중 여행 가보고 싶은 나라는?
5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4나라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나라는?
6	가장으로서 걸리버는 어떤 인물인가?
7	스트리트 블록 이야기의 의도는?
8	소인국과 거인국에서 피부 인식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9	왜 걸리버 여행기는 아동용으로 널리 퍼져있는가?
10	걸리버 여행기를 현실과 비교해서 읽어보자
11	제일 이상적인 국가는 어디인가?
12	소인국사람들이 걸리버를 대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3	소인국의 모순점은?
14	걸리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걸리버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15	릴리프트의 관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6	작가에 대해 비판해보자
17	내가 만약 걸리버의 상황이었다면?
18	걸리버는 왜 계속 여행을 하였는가?
19	걸리버 여행기와 21세기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20	휴이넘은 하필 왜 ‘말’ 로 표현되었는가?
21	라퓨타의 아카데미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22	라퓌타를 하늘을 나는 섬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3	내가 만약 소인국이나 거인국에 간다면 어떻게?
24	소인국 왕의 입장에서 걸리버는 어떤 인물이었다?
25	브롭딩벵에서 걸리버가 얻고자 하는 정의는 무엇이었는가?
26	걸리버가 말하는 자유란?
27	소인국을 통해 바라본 작가의 가치관은?

〈표4〉 위대한 개츠비 토론논제

	토론논제
1	개츠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츠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토론해봅시다
2	볼룬 상대가 죽었을 때 톰이 운 이유는 무엇일까?
3	데이지에 대한 너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인가?
4	작가는 왜 톰에게 유리한 결말로 작품을 끝냈을까?
5	너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6	초록불빛의 의미는?
7	작가가 상류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8	내가 개츠비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9	개츠비의 사랑을 평가하자면?
10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포인트 무엇인가?
11	작중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보자
12	작가는 왜 개츠비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말로 작품을 매듭지었는가?
13	전쟁 직후에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나 사실을 밝혔어도 그녀는 개츠비를 사랑했을까?
14	베이커라는 캐릭터는 무엇을 상징하며,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15	왜 작가는 너를 통하여 작품을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풀어나갔는가?
16	작중의 쓰레기장의 안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7	데이지의 딸이 여성으로 평범하게 살기 원하는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	왜 이야기의 서술자가 너인가?
19	데이지가 속물적인 것인지, 시대가 속물성을 강요하는 것인지?
20	만약 톰의 정부가 차에 치이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21	만약 데이지가 끝까지 개츠비 곁에 있었다면?
22	현대사회에서의 개츠비의 모습은?
23	현대인과 개츠비의 차이점은?

토론 수업 시 교수자는 매 작품마다 한가지의 토론논제를 제시하고 나머지는 각 조별로 자유롭게 5가지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 토론하게 했는데, 위의 토론논제들을 보면 같은 텍스트를 읽고도 아주 다채로운 질문과 토론이 오고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또한 사실적인 내용부터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 개인의 생각, 작품과 현실을 연결하는 것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변신의 토론주제 중에서 ‘별레는 오늘날 무슨 층으로 볼 수 있을까? 같은 주제는 일베층, 관심층, 맘층 등 혐오의 명명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작품과 연결해서 토론해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토론주제 만들기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작품을 분석하는데 학습자들의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저읽기(문학) 수업의 마지막 주에도 역시 토론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의 토론수업은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조별로 한 학기 동안 다룬 작품별로 하나씩 토론논제를 정한 후 조별 대표 논제를 선정한다. 이후 각조별로 정한 대표논제를 놓고 전체 조원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적인 논제를 정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이때는 대표토론자를 정하고 패널들도 토론에 참석시켜 진행을 하는데 발언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 가치토론의 형태로 진행한다. 그 이유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자유로운 토론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면 기말의 토론은 팽팽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킬 수 있는 찬반토론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순발력, 깊이 있는 생각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기말에 학생들이 선정한 작품별 대표논제와 찬반토론을 위한 최종적인 논제이다.

〈표5〉기말 토론 논제

그리스 로마 신화	
1	신들의 처벌 방식은 적절했다
2	제우스의 바람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
3	사랑은 운명인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4	그리스 로마신화속의 인간 단죄는 정당하다
5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한 큐피트는 프시케가 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립된다.
6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별은 합당하다.
〈변신〉	
1	그레고르를 대한 가족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다.
2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었지만 아들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도록 유도한 것은 옳지 않다.
3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한다.
4	벌레가 된 오빠 그레고르를 미워하는 누이동생의 변심은 정당하다
5	변신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보편적 본질적인 모습이다.
6	벌레지만 가족이던 그레고르를 죽게 한 아버지는 살인자이다.
7	가족에 대한 그레고르의 희생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걸리버 여행기〉	
1	휴이넘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2	걸리버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눈을 멀게 해 죽일 모의를 한 것은 옳지 않다.
3	휴이넘은 정말 이상적인 곳이다
4	작품 속 아카데미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낭비를 상징한다
5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걸리버가 양육권을 가질 수가 없다.
〈위대한 개츠비〉	
1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다.
2	개츠비의 사랑은 고결하고 순수하다.
3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개츠비의 경우 밀주등)
4	닉의 방관적인 태도는 정당하다.
5	개츠비와 테이지의 불륜에 조력자 역할을 한 닉은 죄가 있다 혹은 없다.
6	개츠비가 사랑한 것은 테이지가 아니라 자신이다.
7	툼 뷰캐넌의 내연녀가 죽은 후 테이지의 사고를 덮기 위한 뷰캐넌의 대처는 현명했다.

찬반토론논제	
	목적에 위해서는 불법적인 수단도 가능하다.
	벌레로 변했지만 아들을 죽게 한 아버지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가족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희생은 가치 있는 행위이다.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한 학문을 위한 공론을 위한 아카데미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츠비의 사랑은 고결하고 순수하다.
	사랑은 조작이 가능하다.

위에서 제시한 각 작품의 토론 논제 및 기말토론 논제들을 살펴보면 명저읽기(문학)의 문학토론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만든 논제들을 가지고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선정한 논제들은 그들이 기존의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해왔던 인물의 성격, 갈등, 작품의 구조 등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보다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문학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고전이 지닌 현재적인 가치를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문학에 반영된 사회구조와 모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현재성의 의미에 대한 비판 등을 각자가 가진 경험의 프리즘을 통해 창의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 능력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러한 결과는 문학토론이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의 기말 설문결과는 문학토론이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명저읽기(문학)은 수업 시작 전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를 묻는데 수업시작 전 설문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인 교수주도의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수업방식에 대한 설문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16-1학기에는 38명중 3명만 강의 중심의 수업이 좋았다고 대답을 했고,

14) 학생들의 논제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은 토론 보고서로 e-캠퍼스에 공유하는데 그 중 몇 개를 뒤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2016-2학기에는 39명 중 단 1명만 강의위주의 수업이 좋다고 응답을 했다. 또한 문학토론 전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토론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키워졌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의 독후감을 보면 뒤로 갈수록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내는 능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학생의 글은 작품을 새롭게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해석한 사례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살럿에게

역사콘텐츠학과 000

안녕 살럿. 나는 네가 살던 시대의 200년 후에 한국에 살고 있는 000라고 해. 지금은 네가 살던 때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어.(중략)

네가 살던 1800년대의 영국과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라고 생각해. 19세기 영국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은 남성주의의 사회였어.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의해 규제되었지. 또한 모든 계급이 금전에 기반을 두고 돈의 정도에 따라 인간의 신분이나 힘이 달라졌어. 그래서 여성들은 돈 많은 남성과의 결혼이 곧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지. 그리고 네가 살던 영국 롱본에서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 때문에 너의 친구인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너의 남편이자 엘리자베스의 친척인 콜린스가 베넷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생기게 되었어.

물론 지금은 남녀평등의 사회가 되어서 네가 살던 시대와는 달리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지.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아직도 남성위주로 돌아가는 사회 체제는 남아있어. 그래도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말 잘된 일이야. 네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았다면 콜린스와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를 일이지.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 하지만 넌 이미 콜린스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나도 당시 너의 상황이라면 콜린스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현실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삶이 사실 정말 힘든 것이기 때문이야. 200년 후의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경제적인 조건을 보곤 해. 네가 사랑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야.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이 행복이 되는 것이지. 너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콜린스와의 결혼을 결정한 거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 그래서 너는 정말 행복했다고 말이야. 너에게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고,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현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에 부러움을 느낀 적은 없었니? 내가 생각하기에 안정감 있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할 테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서로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름다웠던 것도 아니고, 가난할지라도 ‘사랑’ 이라면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야.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해. 너를 아름답게 봐주고, 사랑스럽게 봐줄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야. 현실에 부딪혀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고, 사실 지금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씁쓸해.

너를 비롯해서 지금 안정적인 삶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사랑한다는 감정은 모두가 특별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니 현실만을 생각하다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랑한다는 감정은 살아가면서 느끼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현실에 휩쓸려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현실의 난관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를 바래. 그리고 샬럿, 다음 생에는 너도 엘리자베스 처럼 너를 사랑해주고, 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랄게. 책 속의 너는 엘리자베스의 친구일 뿐이지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의 너는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테니까.

너의 행복을 빌며 이만 편지를 줄일게. 안녕.

2016.10.14.

대한민국에 사는 000가

위의 사례 글은 *오만과 편견*에 대한 편지형식의 독후감이다. 편지글은 친근하게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글은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오만과 편견의 문제를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남성에게만 상속이 가능했던 영국의 한정상속 제도의 부조리함과 사랑 없이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샬럿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당시 여성의 형편없는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문제로까지 연결하여 오만과 편견의 문제를 예들러서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가 작중의 주변인물인 메리의 결혼을 개인의 욕망이 아닌 사회적 조건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일반적인 편견에 대한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낸 것은 매우 참신한 발상이다. 이러한 사례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글쓴이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문학토론을 통해 얻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해석의 다양성이 결과한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저읽기(문학)수업은 한 학기에 최소 4편 이상의 작품을 읽는 수업으로

여러 편의 장편을 읽어야하므로 요즘처럼 독서를 기피하는 풍조에서는 부담이 많은 수업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명저읽기(문학) 수업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을 느낀 점으로 명작이지만 이름만 알았던 작품을 읽고, 문학작품 속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경험과 힘들었지만 논제를 만들어 토론한 수업방식을 꼽았다. 또한, 토론으로 나 아닌 다른 조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진 것을 토론이 준 성과로 들었다.¹⁵⁾ 상명대학교에서는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가 수강한 멋진 강의’라는 수기를 공모하고 있는데, 2015년 수기 공모전에서 명저읽기(문학) 수업을 멋진 강의로 뽑은 학생은 “이전에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토론수업을 하더라도 던져진 논제로 토론을 하기 일쑤였는데 명저읽기 시간에는 책을 읽고 조별로 모여 조원들끼리 직접 논제를 몇 가지 정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상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6:123쪽)하는 방식을 특별하고 좋은 경험으로 들기도 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명저읽기(문학)수업에서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꼽는다. 학생들은 토론을 진행하며 작품의 구성이나 성격,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학사적인 의미, 오늘날 문학텍스트들이 우리의 삶과 의식에 끼치는 영향 등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현재적인 의의를 찾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작품을 매개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현실에 대해 가감 없이 통렬한 비판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고를 확장해나간다. 즉, 명저읽기(문학) 수업에서 진

15) 기말설문에서 학생들은 문학토론을 통해 얻은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은 내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굴러다녔다. 토론을 통해 그 세계에 조금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들이 들어와서 풍요로워졌다.” “다양한 사고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문학토론이 가져온 사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한 문학토론은 토론을 통한 상호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토론자들의 집단지성으로 다양하게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작가 이탈로 칼비노는 고전을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될 때나, 개인의 무의식이나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채 기억의 지층 안에 숨어 있을 때 그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 (이탈로 칼비노, 2008:12) 하는 책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명저읽기(문학)수업의 문학토론은 학습자들이 그간 읽었던 문학텍스트를 통해 그들이 경험해온 현실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비판적인 통찰력으로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고전 수업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는 글

인문고전중에서도 문학텍스트는 토론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가장 활발하게 전유되며 독자의 경험이나 지식이 작품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독서를 통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의 향유, 집단적인 문학토론을 통해 미적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학텍스트의 수업은 일반적인 기존의 토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그간 명저읽기(문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학텍스트는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텍스트와는 달리 기존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문학토론의 방식으로 해석의 다층성을 지닌 문학텍스트를 통해 사고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고전읽기 수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명저읽기(문학) 시간에 진행되는 문학토론은 특별한 형식적 제약을 두지

않고 학습자들 스스로 논제를 정하여 수업을 진행해나가야 하므로 요즘의 학습자들에게는 힘든 과정이다. 또한 이 교과목이 텍스트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까닭에 문학작품의 속성인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의 다양한 경험과 해석을 통해 텍스트의 총체적인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것을 문학토론의 방식으로 상정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한 수업의 진행결과 문학토론이 고전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고전읽기 방법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차시별로 마련하여 다른 고전읽기 강좌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은 이 논문이 지닌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문학토론에 대한 더욱 정치한 논의의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적인 토론과정에서 토론자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 토론의 결과에 대한 검증, 문학토론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정치한 분석틀을 만드는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상욱(2013). “문학토론의 방향과 방법”,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7-238.
- 김상욱(2009). “문학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토론의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4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34.
- 김상욱(2004). “문학적 사고력과 토론의 중요성”, *한국초등국어교육* 2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97-124.
- 김주환(2004). “독서토론이 고등학교 학생의 감상문쓰기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5-29.
- 박삼열(2012). “토론식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전략”, *교양교육연구* 6(4), 한국교양교육학회, 237-262.
- 박정진, 윤준채(2004). “읽기수업에서의 질문 들여다보기-비판적 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2, 한국독서학회, 119-144.
- 상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2016). *2015학년도 내가 수강한 멋진 강의*, 123-126.
- 상명 추천도서 선정위원회(2015). *상명추천도서 100선 선정 연구보고서*, 2015, 상명대학교 의사소통 능력센터.
-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교육학회, 67-106.
- 서영진(2013).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6, 국어교육학회, 415-450.
- 신희선(2012). “대한 교양교육에서 〈인문학독서토론〉 수업사례”, *사고와 표현* 5(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7-46.
- 이남호(2011). “21세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 10,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21.
- 이남호, 조혜숙, 남궁민(2008).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비판적 연구-2007 개정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논문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56-168.
- 이인화(2013).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94, 한

국국어교육학회, 249-280.

이진남(2013). “국내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 *인문학 연구* 45,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07-442.

정재림, 이남호(2014). “문학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박완서 소설에 대한 토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417-442.

황지원(2013). “대학토론교육의 의미와 구체적인 적용- 토론 교양관련 교양 교과목의 실제 활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3), 한국교양교육학회, 565-595.

이탈로 칼비노(2008). *왜 고전을 읽는가*, 이소연 역, 민음사.

※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6년 11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2016년 12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2016년 12월 2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 초 록 ◆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능력 개발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방안 연구
— 문학토론을 통한 <명저읽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강옥희(상명대학교)

대학에서의 인문고전 수업은 읽기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쓰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최근 각 대학은 인문고전 읽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상명대학교 또한 최근 대학교양교육의 흐름에 발맞추어 인문고전 읽기 강좌인 명저읽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의 고전읽기 강좌인 명저읽기(문학) 수업의 사례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의 개발 및 확장을 위한 고전읽기 수업의 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저읽기(문학) 수업은 토론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작품읽기를 수행하는데 교수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열린 토론을 지향한다. 문학토론이란 문학텍스트의 속성인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총체적인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명저읽기(문학) 수업에서 문학토론은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제시나 획일적으로 주어진 논제 없이 스스로 만든 논제들을 통해 얼마나 다양하게 열린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경험의 프리즘으로 다양하게 작품을 해석하면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확장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고전읽기, 문학토론, 창의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사고의 확장, 열린 토론

◆ Abstract ◆

Study of Classic Reading for Development of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 Focusing on ‘Classics Reading’ Lessons with Literary Debates

Kang, Ok Hee (SangMyung University)

Liberal arts lectures in universities relying on reading, are an important tool to promote students'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power throughout the debate and essay writing. Several universities have been opening up the lecture based on reading the liberal arts and Sangmyung university is currently giving out the lecture 〈Classics Reading(literature)〉 as well following on the universities' cultur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way on giving the lecture to expand the scope of one's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by the example of the lecture 〈Classics Reading(literature)〉.

〈Classics Reading(literature)〉 lecture aims at the debate about giving thoughts on the text which the learners hold the central place and minimizes the roles of the teacher while reading the literature actively.

Literature debate refers to considering the varie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n literature, composing overall meaning through the experie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earner. It shows how variously can the learners interpret the subjects not made uniformly or by the teacher but by themselves according to the 〈Classics Reading(literature)〉 lecture. It is also able to find how they expand their analytic and creative thinking ability throughout the process on the literature analysis by the prism of the experience they have.

〈Key Words〉 classics reading, literature debate, crea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부록

논 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즈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토론해봅시다 2. 작가가 상류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3. 불륜 상대방이 죽었을 때 톰이 운 이유는 무엇일까? 4. 내가 너이라면 개즈비에게 말했을까? 너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인가? 5. 작가는 왜 톰에게 좋은 결말로 끝냈을까? 6. 너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7. 초록불빛의 의미는?
토 론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즈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토론해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하지 않다. 군인이었을 때는 순수한 사랑이었으나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가진 게 많아지면서 데이저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 되었다. 데이저만을 진짜 사랑했다면 도망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류층인 데이저 자체를 원한 것이다. - 위대하다. 방탕한 시대상황과 달리 한 여자만 좋아한 것이 위대하다. 2. 작가가 상류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시대반영 및 작가의 상류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3. 불륜 상대방이 죽었을 때 톰이 운 이유는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눈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데이저가 살인을 고백했을 때 위로해주는 것을 보고 톰의 눈물은 의미가 없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악어의 눈물이란 위선적인 눈물을 의미하므로 진실된 눈물이 아니다. 4. 내가 너이라면 개즈비에게 말했을까? 너의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의의 거짓말이다. 모든 사실을 개즈비에게 말했어도 개즈비가 이미 사랑에 빠진 입장이므로 안 믿었을 것 같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이었다. 5. 작가는 왜 톰에게 좋은 결말로 끝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톰은 불륜이라는 불명에도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하나 잃지 않았다. 결국 가정, 명예, 부모든 것을 가진 톰에게 좋은 결말은 톰이 거짓말로 개즈비를 죽이게 한 야비함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물질풍요시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류층인 톰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시대 상황이 변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6. 너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는 주식투자를 위해 동부로 왔으나 점차 개즈비를 경적하는 모습을 보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제 3자,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너이 인간적, 감성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해 개즈비의 이야기가 아닌 너의 성장소설로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너이 인간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1920년 대 미국 물질풍요시대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7. 초록불빛의 의미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데이저에 대한 사랑 - 부정적: 일시적인 깜빡이는 빛, 부를 추구하는 것이 허망함.

논 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점에서 개즈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2. 내가 개즈비 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3. 개즈비의 사랑을 평가하자면? 4.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포인트 5. 데이지라는 인물에 대해 6. 톰이라는 인물에 대해
토 론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점에서 개즈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구구절절한 순애보로 평가 받는지 모르겠다. - 해당시대에는 여성인권이 낮다보니 저평가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 개즈비는 어떻게보면 올바른 사랑, 제대로된 사랑을 하지 않은 듯하다. 5년이 나 잠수를 타고 긴 시간동안 스토킹을 한끝이기 때문이다. - 일부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남자들의 로망’ 같은 인생 최고의 성취를 해내고 그것을 이루고 여자를 다시 찾아갔다는 부분이다. 2. 내가 개즈비 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금더 치밀한 설계로 집안을 파멸시키면서 데이지가 자신에게 오도록 했을 것 같다. - 데이지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했을 것 같다. - 데이지의 옆에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을 것이다. 3. 개즈비의 사랑을 평가하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즈비가 신분을 속이고 만난 것부터 문제가 있고 비뚤어진 사랑을 했다고 생각한다.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사람 - 용감한 사람 - 광적인 자기애의 실패 -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가 남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같은 오류 4.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릭터 설정이 매우 재미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캐릭터의 개성이 각각 살아 있어서 보는 맛이 있었다. - 책의 배경묘사 같은 것이 살아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 데이지의 감정이나 생각을 설명 묘사 없이 되어있지 않은 점이 데이지의 슬픔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5. 데이지라는 인물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지가 개즈비에게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고 표현할수 없을 것 같다. - 살인자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개즈비가 뒤집어 썼는데 데이지는 도망쳤고 배신하는 꼴이 너무 추악했다. - 개즈비의 짐착이 데이지를 배신했다고 보기보다 점점 멀어지게 했다고 본다 다만 소설에서 그렇게 배신했다고 표현했을뿐 - 데이지가 너무 어린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행동의 판단이 확실치 못하며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한 모습이 너무 어러보인다 - 데이지가 어리지 않다 시기상 데이지가 취할수 있는 권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데이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p>6. 톰이라는 인물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후의 승리자라고 생각한다. 지극히 취한 이득만 생각해 본다면 최후의 승리자다. - 승부사 기질이 대단하다 뛰어난 판단력으로 승리했다. - 뺑소니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톰으로써는 당연히 개즈비가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톰이 윌슨에게 개즈비의 차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톰만의 방식의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한다.
--	---

<p>본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즈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토론해봅시다. 2. 개즈비의 사랑은 어떠한가? 3. 데이지가 이 작품에서 상징하는 것은? 4. 이 작품에서 너은 어떤 존재인가? 5. 개즈비의 장례식이 나타내는 것은? 6. 개즈비의 허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	--

<p>오 리 엔 트 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한가?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개즈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토론해봅시다. 개즈비의 사랑은 위대하다 - 방법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점이 위대하다. 로맨틱한 이상적인 남성이다. 위대하지 않다. -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고집이 세며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2. 개즈비의 사랑은 어떠한가? 진심으로 순수하게 데이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즈비를 위한 사랑 같다. 데이지라는 사람보다는 데이지의 배경과 데이지와 결혼을 통해 바뀔 자신의 지위를 위해 사랑하는 것 같다. 자기 보존적이다. 3. 데이지가 이 작품에서 상징하는 것은? 개즈비가 잡으려고 했던 초록불빛, 그러나 잡을 수 없었던 신기루 같은 존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내는 개즈비가 끊임없이 원하는 이상향, 추구하는 것이지만 추구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 부정적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기주체가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 4. 이 작품에서 너은 어떤 존재인가? 개즈비가 현대인을 나타내는 반면 과거의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 과거의 인간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현대인들의 환상과 같은 이상향을 는 모습을 어리석게 바라본다. 작품이 화자인 너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점으로 보인다. 5. 개즈비의 장례식이 나타내는 것은? 개즈비의 파티의 참석한 사람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세 명만 참석하는 장례식을 통해 상류사회의 무심함과 비인간적인 모습의 나타냄. 부질없음. 6. 개즈비의 허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사진이나 훈장을 가지고 다니며 자랑하는 모습에서 자기파시적인 모습이 강하고 소설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에 약간의 과대망상증의 모습을 모인. 하지만 파티에서 주인공으로써 나타나지 않고 숨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